"주암댐 물 광주천 공급 철회하라"

광양시의회 이어 시민단체도 "섬진강 염도 높아져 생태계 파괴 불보듯"

광양지역에서 주암댐 물의 광주천 공급을 반대하는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광양시민과 환경단체 등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천에 물 공급 시 섬진강 염도가 높아져 주변 농작물 피해와 어패류 등의 생태계 파괴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주암댐 물 광주천 공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섬진강 수계의 주암댐 물을 광주천을 비롯한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키로 한 것은 가뜩이나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섬진강의 생명줄을 빼앗는 행위"라며 물공급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와 광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광주천 및 영산강 수계와 전혀 무관한 주암댐 물을 하루 10만㎥를 광주천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섬진강 하류권의 생태환경 악화는 물론 바다화에 가속이 붙어 염해권역이 상류까지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인휴 광양부시장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 생활용수를 광주천 하천 유지수 계획 철회, 섬진강에 급수용량 확대,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조사 및 근본적 대책 요구, 하천유지수 기준점 다압 죽천 정수장 하부지역으로 이전 등을 요구하는 한편 섬진강 인근 시군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섬진강 유역권 3개도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 주암 인삼 수확

순천시 주암 인삼작목반원들이 주암면 들녘에서 6년 동안 정성스레 키운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 작목반은 1000㎡당 생삼 550㎏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오동도, 품격높은 공원으로 거듭난다

6억 들여 쉼터·LED시설 박람회 대비 대대적 정비

오동도 국립공원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대비한 대대적 정비로 더욱 품격높은 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동도 국립공원에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진입광장(인도·차도)을 포장하고 쉼터데크, 종합 안내판, 파고라, LED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등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시는 최대한 공기(工期)를 줄여 오동도를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11월중에 착공, 내년 1월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오동도에 총 34억원을 투입해 ▲자연생태림 보전 ▲자연학습장 정비 ▲뷰티로드 조성 ▲숲 탐방로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오동도 분수대 안전시설 등 생태복원과 시설정비 사업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오동도 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를 완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오동도가 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만큼 앞으로 더욱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원별 보존·관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무 재심의'를 열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중 오동도 지구는 전남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곡성 한우·흑돼지 저렴하게 맛 보세요

기차마을서 농축산물잔치

곡성 청정한우와 흑돼지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곡성군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사진〉에서 '청정고을 곡성 농·축산물 큰잔치'를 연다.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로 준비된 이번 큰잔치에서는 지역 농·축산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사장에서는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한우와 흑돼지를 판매할 계획이며 섬진강 은어와 민물참게 요리도 저렴하게 맛 볼 수 있다.

또한 읍·면 대항 농악 경연대회와 떡매치기, 김치담그기 등 체험행사와 짚풀공예 전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수상작품요리 전시 등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친환경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직거래를 통한 도·농 상생의 장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순천 한평정원 경연대회

중앙동 자치위 '주경야독' 대상

시민들이 직접 정원사가 돼 정원을 만들어 보는 '한평정원 경연대회'에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출품작인 '주경야독'이 대상을 차지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헌책과 서랍을 이용해 정원을 가꾸는 것은 배움이며 즐거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가족, 단체, 외국인 등 총 25팀이 참가해 '재활용품을 활용한 친환경정원'이라는 컨셉트로 개성있는 정원 가꾸기 솜씨를 뽐냈다.

수상자에게는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장에 '한평정원'을 만들 수 있는 우선 참가권이 부여됐다.

한편 순천시는 '2011 순천만 갈대축제' 기간인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동천변에서 '한평정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과학탐구대회 전자과학부문

순천 왕운초 조성한군 대상

순천 왕운초등학교(교장 이학균) 조성한(5학년) 학생이 최근 울산 과학기술대에서 열린 '제29회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초등부 전자과학부문에서 영예의 대상(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기계과학부문에 참가한 구성휴(5학년) 학생(지도교사 박상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부 주최, 한국과학 창의재단·울산광역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등학생 194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소질을 계발하고, 과학교육을 통해 배운 원리를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지도교사 박향희 교감은 "두 학생은 대회에 앞서 여러 가지 회로도를 보면서 예상문제를 직접 작성하고 회로 구성 연습을 하는 등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전 북

국화꽃 향기 맡으며 질마재 걸어요

내달 5일 고창서 미당문학제

미당 서정주(1915~2000)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주민 축제로 승화시킨 '미당 문학제'와 '질마재 문화축제'가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고창군 미당 시문학관(부안면 선운리) 일원에서 열린다.

'질마재골 국화향 속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를 위해 주민들은 20㎞의 주요 도로변과 미당 묘소 주변 3만여평에 국화밭을 조성했다.

첫날인 5일에는 기념식과 축하공연에 이어 관광객과 함께 소요사를 거쳐 강나루까지 8㎞의 '질마재 따라 걷기'와 '국화길 보물찾기' 등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또한 농악, 대중음악, 중국기예단 서커스 공연 등 문화체험과 연·허수아비, 장승, 솟대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떡도 만들어서 먹어보는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백일장 대회와 서정주 시 댓글 달기, 시화전 전시 등 문학체험과 함께 전통두부 막걸리 시음, 지역특산품 판매, 먹거리 장터 등도 마련된다.

조병균 축제추진위원장은 "국화향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구도심 활성화 1조5천억 투입

2030년까지 3단계… 정주여건 개선·문화공간 조성

군산시 구도심이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특색있게 개발된다.

군산시는 26일 문동신 시장과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 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구도심 종합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지 정비권역과 중심 시가지권역, 신발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정주여건 개선 ▲청소년 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새만금~구도심 연결 도로정비 등 60여 가지의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구도심 종합개발 사업은 1·2·3단계로 나뉘어 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먼저 1단계(2012~2015)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환경조성 및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한 도시 재생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월명공원 주변의 재해 위험지구와 대규모 유휴지 등을 공동주택지로 개발하고, LNG발전소와 연계해 이들 지역에 난방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로망 체계만 형성된 열악한 지역에는 소공원과 주차장 등을 확충해 역사문화와 삶의 공간이 조화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3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뒤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지난 25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9회 고창예술제'에 참가한 지역학생들이 한국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예술제는 지역 국악, 문인, 미술, 음악협회가 주관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고창군 제공〉

단신

전북고속 체불 근로자 "31일 운행거부"

전북고속 운전사 300명이 4~10월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31일부터 전면 운행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인 전북고속 운전사들은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일까지 임금이 계속 체불된다면 전면적인 운행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북고속 운전사들도 ▲전북도의 재정지원금 부당 지급 의혹 ▲군산~대구 노선 편법 운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한 교섭을 회사측에 촉구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서울서 '비응도 개발 설명회'

군산시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건설사·금융권·운영사 등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비응도 관광개발사업은 상업용지 4만8245㎡의 부지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1천500여억원을 투자해 호텔형 콘도 190실, 일반형 콘도 260실, 아쿠아리움, 테마상가 등 해양문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내년 3월까지 공모신청을 받아 같은 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김제시 맞춤형 복지 '드림스타트' 시행

김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인 '드림스타트'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검산동 주공아파트에 드림스타트센터를 열고 2014년까지 11억원을 들여 복지서비스를 펼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12세의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공정한 교육과 복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보건, 보육 등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106m 순창 메주 만들기' 도전

순창군은 '제6회 장류축제'(11월 4~6일)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106m 순창 메주만들기' 행사를 연다.

행사는 5일과 6일 순창읍 고추장민속마을 축제장에서 열린다. 106m는 건강 장수를 상징하는 '100세'와 '6회' 장류축제를 조합한 숫자다. 5일은 관광객 500여명이 삶은 콩 350kg를 이용해 가로 10cm, 세로 12cm 크기로 동시에 106m 길이의 메주를 만들어 옆사람과 연결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주 전동성당·고산 되재성당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전주 전동성당(사적 288호)과 고산 되재성당(전북 기념물 119호) 등 전북지역 천주교 유산에 대한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천주교 전주교구와 전북도는 27일 도청에서 도내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전북 천주교 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가능색 모색'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주 도의원은 "전북의 종교는 세계가 해법을 찾는 종교 간 대화가 실현되고 있는 곳"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김혁태(광주 가톨릭대학) 교수는 "전북의 천주교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등재 과정을 통해 전북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북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가치와 문화를 개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다.

이영춘 신부는 "전북은 천주교가 들어온 초창기부터 박해시대를 거치는 동안 천주교 신앙인들의 중심지였고 삶의 터전이었다"며 "교회문화유산을 잠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일본 나가사키처럼 등재를 서두르기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복원, 보존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군산 은파관광호텔 경매 또 중단

지난 5·6월 두차례 유찰 이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 제기

기초공사만 끝난 채 3년 가까이 방치된 군산 은파관광호텔의 경매절차가 또다시 중단됐다.

지난 5, 6월 두 차례의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은파관광호텔에 대한 경매절차가 채권자 측이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로 경매절차가 중지됐다.

채권자인 J금융기관이 최근 예정됐던 3차 경매를 앞두고,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80억원에 가까운 유치권의 진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소를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연말까지는 이 호텔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은파관광호텔은 지난 3월에도 사업자 측이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경매절차가 중지된 바 있다.

이 호텔은 지난 5월(경매가 89억4000만원)과 6월(71억5000만원)에 경매하려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으며 2차 대비 20% 감액된 57억2천만원에 대한 제3차 경매를 이달 중순께 진행하려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유치권에 따른 소송으로 이 호텔의 경락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면서 "은파관광지내에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호텔 주인이 하루빨리 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